

특허청 WIPO와 함께 지식재산 콘텐츠 공동개발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WIPO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세계 특허청에 이를 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파노라마라 불리는 이 콘텐츠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특허, 영업비밀, 상표, 의장, 저작권, 특허 정보, 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총 10개 분야가 다루어지며, 지난 3월부터 최초의 시범 콘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특허청에 배포되었다고 전했다.

김종갑 한국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파노라마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과 보호를 증진시키는 커다란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을 수출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WIPO 사무총장 이드리스 박사는 '지식재산 파노라마로 인하여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쌍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한국 및 해외의 주요대학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소유주, 관리자 및 주요 인사들이 사용

하기 적합한 다목적 교육 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 파노라마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이 법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면, 이번 e-러닝 콘텐츠는 지식재산권의 법적 관점을 확장하여, 지식재산권이 사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관계성과 해외에서의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자료라 할 것이다. 이번 e-러닝 콘텐츠는 그림과 글자뿐만 아니라 소리, 애니메이션 그리고 동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공되며, 교육공학적인 교수 설계에 입각한 코스웨어 방식으로 개발되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

이번 공동개발사업은 WIPO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개발기술을 인정받아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아카데미에서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개발된 콘텐츠는 차기 2년에 걸쳐 WIPO 및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서비스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대폭 간소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공단(이하 중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금융기관 등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해 한 차례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즉 중진공에 자금 신청을 한 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추가 방문 없이 중진공에서 바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보·신보에 들르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

이 정책자금 원 프로세스가 구축되면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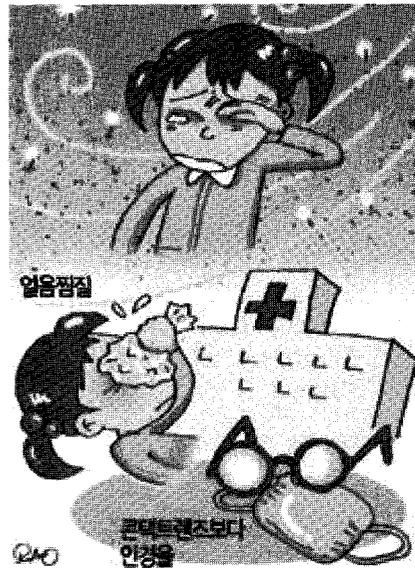
보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일단 중진공에 신청만 하면 보증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중진공과 보증기관간 인터넷 망을 통한 지원결정서 통보, 보증기관 전자보증서 발급, 전자통보, 대출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증서의 전자화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도 일주일 이상 줄게 된다.

원 프로세스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자금, 개발·특허기술 사업화자금 등 4개 자금으로 올해 약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

건강상식

4월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괴롭다!

바람이 싱그럽고 햇볕이 따사로운 계절인 4월이 되면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주변에 만발하게 되는데... 이때 보는 것은 즐거우나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처럼 꽃가루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나타나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증상과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반응을 일으켜 막히는 병인데 3대 증상은 기침, 천명(숨을 쉴 때 '쌩쌩' 또는 가랑가랑하는 소리가 나는 것), 호흡곤란 등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매우 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눈이 시리고, 가려우며 충혈 되고, 끈적한 눈곱이 끼면서 맑은 눈물이 많이 흐르는 질환이다.

치료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꽃가루에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고, 방문은 잘 닫아놓아 외부에서 꽃가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안경,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며 손을 잘 씻고 양치질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또한 대기 중에는 오후부터 초저녁 사이에 많이 날리므로 외출은 가급적 오전이 좋으며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실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증상

알레르기 비염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한 번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하는 재채기, 양쪽 코가 번갈아가면서 막혀서 목소리 까지 변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코 증상은 대부분 발작적으로 생기며 발작이 지나가면 다음 발작이 나올 때 까지는 비교적 조용해지는 변덕성을 보이는데 발작은 아침 기상 시에 또는 세수할 때 가장 흔하다.

기관지 천식

폐로 공기를 들여보내는 기관지가 염증

오늘이따르는 한국표준협회의 협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1%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란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탈취작용·습도조절작용·해독작용·정화작용·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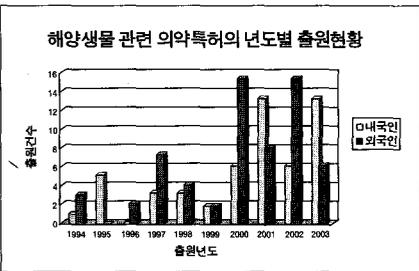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바다로부터 의약강국 꿈꾼다

해양생물로부터 새로운 의약 신소재를 찾기 위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생물은 육상과는 전혀 다른 생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어 지금까지 육상식물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독특한 구조와 강력한 약리효과를 갖는 2차 대사물질을 생산하여 의약품 개발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해양천연물분야는 육상천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등 소수의 연구 그룹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 해양생물의 활용 및 보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마린바이오21 사업' 등의 연구 사업도 활발히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최근 10년간(1994~2003년)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해양천연물관련 의약분야가 총 1백14건이며, 이 중에서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총 52건으로 전체출원의 46%를 점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원은 1999년까지 3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출원의 72%인 82건이 출원되어 최근 의약소재로서 해양천연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소재별로 보면 해양생물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순수화합물에 관한 출원은 전체출원의 33%(17건)에 머물고 대부분의 출원(67%, 35건)이 천연추출물 자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출원은 전체출원의 95%(59건)가 순수 화합물에 관한 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해양천연물 연구 수준은 아직까

지 추출물 자체를 활용하는 단계에 좀더 비중이 치우쳐 있으나, 점차 추출물로부터 순수화합물을 분리하여 약리활성 성분을 탐색하려는 단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해에는 세계적으로 해양천연물 미개척분야인 원색 동물만 약 1천4백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해양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강국이다.

또한, 남극 등 극지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라이브러리 구축에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국내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의 연계 및 이로부터 얻어진 신물질의 특허출원 활성화 등을 통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고부가가치의 해양천연물관련 의약 특허를 보유하는 의약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 상표출원에 비해 등록 건수 미비

최근 '독도'라는 지리적 표시를 대상으로 한 상표출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등록된 상표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라는 지명으로 출원된 상표는 1백28건에 달하지만 '독도'로 등록된 상표는 1건에 불과했다. 등록된 '독도' 상표는 울릉군에서 등록한 것으로 섬 가운데 지역 특산물인 오징어를 그려 넣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독도라는 지리적 표시

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제도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상표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PCT의 경우 '독도'라는 명칭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라도 출원할 수 있는 상표라 현실적

으로 집계가 힘들다'며 'PCT를 통해 상표를 출원한다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일본이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상표로 출원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독도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독도를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에서 한국브랜드 '짜퐁' 활개친다

해외에서 한국 유명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 국내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저가화장품업체인 미샤는 지난 3월 14일 홍콩의 화장품 매장에서 자사 모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 홍콩 세관측에 '불법 유통 품목'으로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유통 중인 모조품은 'MISSHA' 로고와 붉은 꽃무늬 등을 그대로 도용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하고 있었으며 가격대는 원품의 1.5배였다고 미샤측은 설명했다. 제조원과 원산지도 각각 '에이블썬앤썬'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돼 있어 불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모조품으로 추정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초코파이'와 화장품 '미샤' 등의 모조 제품, 로고와 모양을 그대로 도용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태평양 역시 현지에서 가짜 화장품들이 나돌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한국에 없는 제품들이 중국 등지에서 태평양의 브랜드를 달고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가짜상품 색

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초코파이(오리온 등), 라면(농심 등) 등도 가짜 모조·모방 상품이 끊임없이 나돌아 해당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업계 관계자는 '초코파이의 경우 오리온 브랜드를 버젓이 달고 판매되는 모조 제품만 10여개에 이른다'며 '맛을 보면 차이를 느끼지만 모조 기술이 아주 교묘해 구입할 때는 구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스키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해 중국 등지에서는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렌슬릿' 등의 가짜가 판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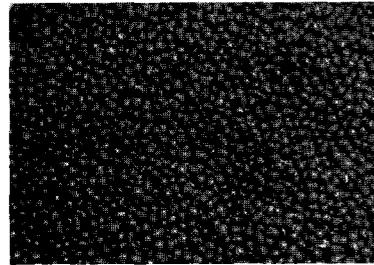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두가지

들깨차 ...



들깨는 자양강장제로서 좋은 효험을 나타낸다. 특히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 좋아서 옛날에는 혼기를 앞둔 딸에게 들깨국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들깨국은 들깨를 3~4시간 물에 담가놓은 다음, 쪽정이를 골라내고 말려서 볶은 후 곱게 갈아서 국에 넣어 끓여 먹는다. 들깨는 고급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들깨차를 계속해서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 들깨차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은 들깨를 물에 씻어서 돌이 없도록 조리질을 하고 그늘에 말려서 가루로 뿜는다. 차로 마실 때는 찻잔에 뿜은 들깨가루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후 설탕이나 꿀을 타면 맛이 좋다.

검정콩 ...



검정콩은 단백질 함량이 41.3%로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우수하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칼륨 등이 풍부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준다. 또한 빈혈 예방에 좋은 비타민 B, 엽산, 베타카로틴, 철분도 많아 저혈압 환자에게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사포닌이 들어 있어 불포화지방산과 함께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관의 노화뿐 아니라 암도 예방한다.

검정콩에는 비피더스균이 장내에 증식하는데 필요한 당류가 많고 검정콩의 칼륨은 수분 대사를 원활히 해준다. 따라서 검정콩을 반찬이나 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할만한 식품이다. 단, 열량에 주의하여 검정콩을 섭취해도 어느 정도 열량 섭취가 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콩의 열량은 높은 단백질 함량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다이어트에 피해야 할 식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식품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산업자원부, 섬유 지재산권 보호 활동 확대

산업자원부는 섬유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의류산업협회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한 결과, 1년 만에 1백13건의 단속 및 28만여점의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1일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이를 위해 제일모직·빈폴 등 국내 업체로부터 1백여개 브랜드의 상표단속권을 위임받아 자체조사 또는 검·경 합동단속에 참여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섬유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부서인 특허청, 관세청, 검·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올해 지적재산권보호사업에 예산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표에 대한 소비자 캠페인, 해외 진출기업의 상표권 보호와 국내상표 해외 출원 업무지원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